

니느웨로 가라

-복음으로 여는 요나서-

요나 1:1-3, 마태복음 16:1-4

정운돈 목사님

서론 : 요나서 개관

(1) 오늘은 요나서를 통해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한다. 요나라는 이름은 '비둘기'라는 뜻이다. 이 속에 이미 결론이 나와 있는 것 같다. 비둘기는 성령을 상징하는데, 사도 행전 1:8에, 성령이 임하시면 땅 끝까지 증인이 되리라고 했다. 비둘기는 운유한데, 요나의 아버지 아맛대는 또 '신실하다, 거룩하다'라는 뜻이다. 신실한 아버지 밑에서 기도의 응답을 받고 운유라는 미션을 받아서 태어나고 자란다. 그런데 요나의 인생은 그 반대로 간다. 요나는 너무나도 많은 기회를 놓친 사람인데, 하나님은 우리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축복 받기를 원하고 계신다. 요나는 자기가 받은 축복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몰랐다. 예수님은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고 했다. 그런데 그 큰 축복과 기회를 놓쳐 버렸다. 왜인가? 요나는 끝까지 하나님께 화를 낸다. "내가 죽겠나이다." 비둘기같이 운유한 모습,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이 아니었다. 비둘기는 성령인데,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라는 의미가 담겨있는데, 잇수르 선교를 못 하겠다는 것이다. 세계복음화를 못 깨달은 것이다. 여러분은 이름보다 못한 삶을 살지 않기를 바란다. 내가 사회복지 현장에 있는데, 정신요양원 시설의 이름이 희망원이다. 거기 사는 분들은 다 희망이 없다. 정반대로 이름을 붙인다. 또 어떤 곳은 소망원이라고 이름붙였다. 이름 반대로 되면 안 된다. 우리 교회는 어떤가. (웃음) 이름대로 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말귀를 잘 알아들어야 한다. 성경은 '율법대로 해라, 교회 많이 부흥시켜라, 가난하게 살라' 하는 말을 한 적이 없다.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고 종교로 살아간다. 우리 어릴 때에는, 앞으로 80년대, 90년대에 마이카 시대가 온다고 했었다. 그때는 전화기가 한 집에 하나 있기도 어려웠는데, 지금은 랩톱들도 휴대폰을 다 가지고 다닌다. 두바이에 가면 청년들도 다 페라리를 타고 다닌다. 우리 기준이 티코 타야 거룩한 것 같은 기준이어서는 안 된다. 이방을 살려라. 한계를 뛰어넘어라.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다. 말귀를 잘 알아들어야 한다. 그런데 우리는 그게 잘 안 된다. 어떤 사장님이 축구를 되게 좋아했다. 한국과 이란이 경기를 하는데, 사장님이 비서에게 부탁했다. "야, 이번 금요일에 이란 전 표 좀 구해라." 그런데 비서가 축구에 관심이 없었다. "몇 시예요?" "금요일 일곱 시다." 7시에 이란으로 출발하는 비행기 표를 끊어온 것이다. 우리 교회 교역자들도 말귀를 참 잘 못 알아듣는데, (웃음) 그래서 피드백을 꼭 할 수밖에 없다. 왜 그런 말을 하는지, 의도가 있지 않잖나. 그런데 거기에 마음이 없는 사람은 이해가 안 되는 것이다. 축구에 관심이 없으니까 말을 못 알아들은 것이다. 여러분의 생각이, 뜻이, 하나님의 생각과 뜻에 하나가 되기를 바란다.

(2) 요나서를 기록한 것이 BC 760년이다. 요나는 북왕국 이스라엘 출신인데, 그 후 BC 722년에 앗수르에 의해 나라가 멸망한다. 하나님은 요나를, 40년 후에 멸망하지 않도록 미리 파송한 것이다. 우리는 10년 후를 모른다. 그래서 말씀 붙잡고 순종만 하면 된다. 미래를 계산하지 말고, 오늘 주어진 일에 충실하면서 메시지에 굳게 붙잡으면 된다. 지난번에 데보라 선교사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나. 시키는 것만 계속 했는데, 10년 만에 세계에 영어유치원 여는 문이 열렸다. 뭔가 재라고 하지 마라. 여러분 있는 현장에서 시킨 것을 즐거움으로 하라. 그러면 유일성, 재창조의 문이 열린다. 작은 일에 충성된 자에게 큰 것을 맡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런데 요나는 자기 일에 충성하지 못했다. 요나가 하나님께 순종했다면 어마어마한 재앙을 막았을 텐데 그러지 못했다. 결국 나라가 없어져 버린 것이다. 이렇게 큰 소명, 사명, 천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다. '내가 이 건 안 해도 되겠지'라고 생각하는데, 그것 때문에 엄청난 재앙이 그 현장에 오게 될 수도 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일을 하시기 바란다.

(3) 요나의 고향은 가드헤벨인데, 갈릴리 지방이다. 예수님이 자라신 현장과 같다. 그러나 영적 상태나 신앙이 예수님과는 전혀 달랐다.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다시스로 갔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다. 모양만 그리스도인이다. 외모만 그런 것이다. 미국에서 어떤 교회가 있는데, 옆에 큰 술집이 생겨서 너무 시끄러웠다. 저 술집이 없어지게 해 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정말 술집이 망해 버렸다. 그래서 술집에서 고소를 했다. "저 교회가 기도해서 우리가 망했습니다." 그래서 담임목사님과 성도들이 재판에 불려가게 되었는데, 이렇게 말한 것이다. "아니, 세상에 무슨 기도해서 술집이 망하겠습니까?" 재판관이, '술집 주인은 믿음이 있는데 교회는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이 있었으면 유죄였겠지만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무죄'라고 판결했다. 술집 주인도 인정했다. (웃음) 불신자도 믿는데 여러분은 안 믿지는 않는가.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혼란스럽지만 나는 믿는다. 분명히 우리나라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것이다. 염려할 게 하나도 없다. 우리 아들이 광화문에 가겠다고 해서 왜 그러느냐 했더니, 하야하라고 가는 것은 아니고, 사람이 많이 모이니가 구경하러 가겠다고 했다. (웃음) 나라 걱정하고 가서 기도하는 것은 좋다. 그러나 누구를 끌어내리고 옹호하고 하는 것에 참여할 필요는 없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가서 기도해야 한다. 이번에는 그래도 평화롭게 잘 했던 모양이다.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이게 되었으면 좋겠다. 누구의 책임이다 하기 전에, 우리가 이해되는 부분도 많지 않다. 그게 우리 국민 모두의 책임 아니겠는가.

(4) 당시 요나는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활동했는데, 여로보암 2세 때의 시대였다. 나라가 아주 강성한 시절이었다. 요나의 입장에서 볼 때는 별로 문제가 없어 보였다. 그런데 앗수르를 왜 강성하게 만들어서 우리를 힘들게 해야 하겠느냐 싶었던 것이다. 요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다. 열왕기하 14:25에 보면, 요나가 그 당시에 선지자였는데, 다른 선지자는 나라가 잘될 때 징계를 선포한 사람이었지만, 요나 선지자는 기도했는데 다

축복이 되어서 나라가 강성하게 되었다. 그런 특별한 선지자였다. 여러분, 특별할수록 겸손해야 한다. 특별할수록, 응답받을수록 순종해야 한다. 그래야 하지 않나. 그러나 요나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을 받은 것인데, 그 응답에 도취되어 버렸다.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는 것이다.

(5) 니느웨는 아주 큰 성이었다. 걸어서 3일이 걸린다고 했다. 3일 동안 걸어서 다녀려면 서울보다 더 큰 도성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요나에게 여기로 가서 회개를 선포하라는 것이다. 요나는 반대로 다시스로 갔다. 그런데 결국 풍랑을 만났다. 제비를 뽑았더니 요나가 죄인임이 드러났다. 그러나 이방인들인 뱃사공들은 요나를 죽이지 않기 위해서 애썼다. 모든 것을 버리고 힘써 노를 저었다. 요나를 살리려고, 이방인들도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힘썼는데, 선지자가 불신앙을 했다. 그리고 종교혼합에 빠졌다. "나를 던져라. 그러면 물이 잠잠해질 것이다." 요나가 한 말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물에 던져야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분인가. 인당수냐. (웃음) 그게 이방 종교다. 요나의 마음 속에는 종교가 혼합되어 있었던 것이다.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 똑같은 곳으로 가는데, 바울은 세계를 살리기 위해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서바나까지 가야 하리라'였고, 요나는 '도망가야 하리라'였다. 마음이 복음이 아니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어려움을 당하니가 잠시 회개했다. 그러나 그 회개가 진정한 회개가 아니었다. 뱃속에서 기도한 내용이 절반은 회개고 절반은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는 것이었다고 미국의 구약학자는 주석했다. 진정으로 거듭나고, 각인 뿌리 제질 사상을 바꾸었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다. 그 기적을 체험한 후에도 그러했다. 그래서 이 학자는 물고기가 요나의 신앙이 너무 억겨워서 토해냈다고 설명했다. (웃음) 그 말이 일리가 있는 것 같다. 회개한 것 같은데 결과는 그게 아니지 않나. 그러나 요나서 3장에, 니느웨 백성은 회개해 버린다. 요나가 원하지 않았던 바다. 그러니까 4장에, 요나가 하나님께 불평을 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나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부교제로 박영쿨을 주셨다. 박영쿨이 있어서 해를 가려주니까 좋다고 하다가, 없어져 버리니까 분을 내고 화를 내면서 '내가 죽는 게 낫겠습니다' 하니까, 하나님은 '내가 박영쿨도 사랑하는데, 내가 어린이어만 12만 명이 있고 가족도 많이 있는 이 성을 어찌 아까지 앓겠느냐' 하신다. 요나서가 거기에서 끝난다. '아, 그래요, 맞아요,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었군요. 제가 복음을 다시 전할게요.' 그게 없이 끝나 버린다. 하나님의 소원을 끝까지 이해하고 붙잡게 되시기를 축원한다. 오늘은 다시스로 가는 길과 니느웨로 가는 길이라는 테마를 가지고 신앙적인 교훈을 얻으려고 한다.

1. 다시스로 가는 길

첫째, 우리는 다시스로 가는 잘못된 생각을 해서는 안 되겠다. 그러면 다시스로 가는 길은 어디로 가는 길이었는가?

(1) 다시스로 가는 길은 창세기 3장으로 돌아가는 길이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아니라 나의 뜻대로 선택한 인간적인 길을 의미한다. 이 길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선택해야 할 길이 아니라, 마귀의 자녀들이 선택하는 멸망의 길이다.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아니라, 전통과 기준, 자기의 이익과 계산에 따라 선택한 비복음적인 길이다. 요나는 민족중심, 전통 중심, 자기 중심의 선택을 했던 것이다.

(2) 둘째로, 다시스로 가는 길은 창세기 6장, 네피림의 길을 의미한다. 요나는 요나서 4:1에,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매우 싫어하고 성을 내었다고 했다. 여러분도 많이 이리저리 않는가. 누군가를 매우 싫어하고 성내는 일이 있지 않은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매우 싫고 화가 난다. 이게 다시스로 가는 길이다. 니느웨로 가는 길이다. 요나의 체질이다. 복음의 체질이 되시기를 축원한다. 다시스를 선택한 체질은 하나님 앞에서도 분을 내고 화를 내는 체질이다. 교회 앞, 말씀 앞에서도 분을 내고 화를 낸다. 싫어하고 성을 낸다. 의분(義憤)이 아니다. 나한테 손해가 나면 화가 나고, 나에게 이익이 되면 기분이 좋고, 기준이 그것 하나밖에 없다. 요나서 4:3에는,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하나님에게 대드는 것이다. 목숨 걸고 순교하겠다 하는 마음이 아니다. 내 대적, 내 원수가 회개하는 꼴을 보느니 차라리 죽겠다는 것이다. 다시스 가는 것을 보면 해외여행은 좋아하는 사람인데, 왜 그렇게 했겠는가. 내 생각대로 안 되니까 만사가 짜증난다는 것이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면 다 되는 것이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화가 난다. 이런 기준이다.

(3) 다시스로 가는 길은 창세기 11장의 길이다. 내 성공,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모습이다.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한계가 있지 않나? 그러니 무속, 우상, 점술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 그러면 그 뿌리는 무엇인가? 하나님께 도전하는 불신앙이다. 교만이다. 사단은 이런 인간의 약점을 이용한 것이다. 앗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를 세운 니므롯도 그런 인물이었다. 하나님께 대적하고 바벨탑을 만들었던 인물이다. 그 아내가 자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부추겨서 우상을 만들었다. 그 여자가 세미라미스다. 남편이 죽으니까 자기 아들 담무스를 환생한 신으로 만들어서 엄마와 자기 신으로 만들었다. 그 우상의 모습이 어느 나라에도 다 있다. 여성이 어린 아이를 안고 있는 모습이 신상들이다. 그것이 음녀의 모습이다.

2. 니느웨로 가는 길

(1) 하나님의 자녀, 복음 가진 성도들은 니느웨로 가는 길을 선택해야 한다. 하나님의 징계와 용서 앞에서 진실로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 기적 앞에서 그렇다. 여러분, 부활을 믿으시는가? 그런데 믿는다면서 정작 일은 마음대로 하지 않나? 요나는 부활을 직접 체험했다. 믿는 정도가 아니었다. 그랬는데 다시 자기 모습 그대로,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돌아가 버렸다. 이것이 한국의 문제다. 10명이라도 진정으로 변화된 사람이 일어나면 하나님은 이 나라를 축복할 것이다. 우리 교회에서 9

명이 나왔으면 좋겠다. (웃음) 멋있게 믿어야 한다. 내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조잔한 사람이다.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가. 주님이 얼마나 힘드셨나? 사촌여동생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밥 먹기가 힘들다고 했다. 밥을 먹으면 자기 속에 계신 주님에게 그게 쏟아질까 싶어서. (웃음) 그래서 자기 마음에 의자를 하나 놓고 있다고 했다. 예수님이 서 계시는데 피곤하시지 않을까, 앉아계셨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다. (웃음) 우주 만물을 지으신 위대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시기를 바란다.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마라.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이 마음껏 활동하실 수 있도록 믿음을 가져라. 생각을 넓혀라. 나를 버려라. 그릇을 넓혀라. 하나님은 우리의 그릇을 키우시려고 정계도 주시는데, 우리가 변화하지 않으면 너무 어렵게 된다. 회개하고 나의 그릇을 깨뜨려라. 내 인생의 모든 미래를 하나님께 1000% 맡겨라.

① 정계를 받고도 깨닫지 못한 인물이 요나였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잠시 회개한 것 같지만 끝까지 불순종을 했고, 니느웨를 용서하신 하나님께 불만을 가지고 끝까지 마음을 열지 않았다. 사흘 길을 다녀야 다닐 수 있는 그 성에서 요나는 하루만 복음을 전했다. 하다 말았던 것이다. 될 때까지 하라. 그것이 일심, 전심, 지속이다. 주께 맡기고, 믿고 기다려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요나는 딱 다섯 마디만 했다. “40 일 후에 멸망하리라.” 아주 무미건조하게 전했다. 속으로는, ‘회개하든지 말든지.’ ‘세탁’ 하고 외치고 돌아다니는 세탁소 선전 같다. (웃음) 영혼 없는 메시지를 던졌다. 그런데 다 회개해 버렸다. 어떤 사람은, ‘아니, 어떻게 그런 말을 듣고 다 회개하느냐?’ 하는데, 왕이 깨달으면 다 회개하는 법이다. 요나가 가기 전에 하나님은 두 번의 큰 전염병을 니느웨에 일으켰다. 또 그때 일식과 월식이 있었다. 그래서 두려워하고 있을 때였다. 그때 요나의 메시지를 들으니까, 왕이 전 국민에게 회개를 선포한 것이다. “저 요나라는 사람, 조사해 보니까 작지만 강한 나라인 이스라엘에서, 여로보암 2세 왕을 축복해서 그 나라를 강성케 한 사람이다. 저 사람이 하는 말을 예삿일로 들으면 안 된다.” 그래서 다같이 40일 동안 회개한 것이다. 니느웨가 40일 집중의 원조다. (웃음) 이방인도 해서 응답받는데 말이다.

② 그러나 요나는 박영콜 밑에서 끝까지 니느웨가 멸망당할 것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었다. 요나서 4:3-4을 보라. “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입니다.」 하니.” 재앙을 내리지 않으시니까 화가 나서, 그래서 4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그러면 대답을 해야 할 것 아닌가? ‘맞습니다’ 하든지,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해야지. 그런데 요나는 대꾸도 하지 않는다. 요나서 4:5을 보라. 하나님의 말에 대답을 안 한다. 가끔 우리 자식들이 그러다. (웃음) 뭐 해라 하면 대답도 안 하고 들어가는데, 이때 하나님의 기분이 이랬을까 싶다. (웃음) 살릴 수도 없고 죽일 수도 없고 내 자식인데. (웃음)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다. 그러니까 대답을 잘 해라. (웃음) 이런 모습을 보았을 때,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③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요나에게, ‘이런 박영콜도 소중한데, 니느웨에는 많은 사람과 동물들이 있으니, 이를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어찌 마땅하지 않겠느냐’ 하고 말씀하신다. 요나서 마지막을 보라. 요나서 4:11에, “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죄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십이만여 명이고,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그리고 끝이다. ‘맞습니다, 저도 공감합니다’ 하든지,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절반만 죽이면 안 되나요?’ 아니면,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나도 그런 죄인이었는데 끝까지 깨달음을 주시고, 선교할 수 있는 축복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겠지요.’ 그런 말을 해야 할 것 아닌가. 그런데 요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이후의 이야기가 없다. 엄청난 축복의 현장에 있었지만, 그것을 중간에 끊어버리고 그 큰 축복을 놓친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 결국 하나님의 뜻은 모두 이루어졌지만, 요나는 축복을 모두 놓친 어리석은 선지자가 되고 말았다. 여러분이 안 하면 안 이루어지는가? 그렇지 않다. 손해는 우리가 볼 뿐이지, 하나님의 뜻은 성취되고 이루어진다.

(2) 그러면 다시스 대신 니느웨로 가는 길의 의미가 무엇인가? 의미를 다시 한 번 정리해 보자.

① 니느웨로 가는 길은 사도행전 1:1의 길이다. 그리스도가 가신 그 길을 의미한다. 예수님께서서는 하나님께 절대 순종하셨다. 그래서 십자가의 길은 예수님의 절대 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에게 영생의 길을 열어주는 구원의 길, 복음의 길이 되었다.

② 사도행전 1:3, 하나님의 나라의 메시지가 성취되는 길이였다. 왜냐하면, 요나가 니느웨로 갈 때, 앗수르에 가기만 했는데, 제대로 복음 전한 것도 아닌데, 갔을 때 앗수르의 수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영적인 사건이 벌어진 것이다. 전도캠프도 그렇다. 대중 할 수도 있고 믿음으로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예비된 사람은 요나처럼 전해도 믿게 된다. 여러분이 믿음이 없으니까 문이 안 열리는 것이다. 여러분이 가지 않으니까 생명운동이 일어나지 않을 뿐이다. 가만만 하면 정복의 응답을 받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란다. 우리는 사단의 정사, 권세 속에서 멸망의 길을 걷고 있는 강대국, 우상 국가들, 그리고 북한 같이 잘못된 공산주의 이념에 빠진 곳까지 가서 복음의 빛을 발해야 되겠다. 우리는 순종하고 가서 바른 복음만 전하면 된다. 니느웨를 회개시킨 것은 사실 요나가 사역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이었다. 요나는 불순종해서 바른 전도도 하지 못했지만 니느웨는 회개하고 복음을 받았다. 우리가 잘못하고 불성실하게 해도, 심지어 우리가 하지 않아도, 전도와 선교는 이루어질 것이다. 내가 헌신하지 않아도 헌당은 이루어질 것이다. 여러분이 전도 안 해도 부흥은 될 것이다. 여러분이 필안 해도 성탄행사는 잘 이루어질 것이다. (웃음) 100회기 총회도 여러분이 너무 잘했다고 1주일 동안이나 칭찬을 받았다. 처음 시작할 때는 다 힘들다, 안 된다, 어렵다고 했다. 그러나 믿고 가면 여러분이 안 해도 응답은 이루어질 것이다. 불신앙만 하지

마라. 가만하면 있어도 본전은 찾는다. 요나는 가만히 있다가 해도 될 텐데 오히려 반대로 가 버렸다. 요나를 닮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란다. 그런 사람은 아무 상급이 없다. 구원은 받았지만 응답은, 축복은 체험하지 못한다. 볼 수 없고 느낄 수 없다. 그러나 그 응답 안에 있는 사람은 행복을 체험할 수 있게 된다.

③ 셋째로, 니느웨로 가는 길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하신 사도행전 1:8의 말씀을 성취시키는 세계복음화의 길이며 다민족 복음화의 길이였다. 우리는 요나서를 공부하면서 선교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아야 되겠다. 선교는 조건이 좋은 곳으로, 나쁜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다. 선교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성령인도따라 가는 것이다. 선교 뿐 아니라 우리 삶 전체가 그래야 한다. 선교지는 도피처가 아니다. 어느 분은 목회가 안 되니까 어느 날 갑자기 선교사가 되겠다고 했다. 여러분, 성령을 보면, 가장 목회 잘 한 사람이 선교사로 갔다. 베드로, 바울, 바나바 같이 제일 잘 한 사람이 갔다. 여기에서 실패했는데 간다고 되겠는가. 그냥 멋대로 혼자 간 것도 아니다. 파송을 받아서 갔다. 기도하고 금식하고 계획하면서, 축복을 받고 갔다. 그런데 많은 선교사님들에게 왜 왔느냐 물어보면 갑자기 왔다고 한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것도 아니고 자기 혼자 온 것 같다. 무슨 선교지가 도피성인가. 직장도 결혼도 다 마친가지다. 겸손히 목사님과 부모님과 상관과 의논하고 소통하면서 결정해야 한다. 그게 진정한 성령의 인도다. 악한 왕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해야 한다. 그것을 잘 한 사람이 다니엘, 사도락, 메삭, 아벳노였었다. 불신자인 고레스 왕을 감동시켰다. 느헤미야가 그랬다. 여러분, 다시스로 가지 말고, 일곱 램프처럼, 또 로마서 16장의 제자들처럼, 니느웨로 가는 언약을 붙잡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한다.

결론 : 요나서를 통해서 깨달아야 할 것

결론을 내리고자 한다. 요나서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몇 가지 깨달아야 할 것을 생각해 보자.

(1) 첫째로,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는 갈보리산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 생각하면서 주님께 감사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우리는 니느웨 사람처럼 멸망받아야 마땅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주님께서 아무 조건 없이 갈보리산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앗수르, 니느웨 사람만 악한 행동을 한 것이 아니다. 우리의 모습이 바로 그러하다. 그러나 우리가 인정만 하면, 조금만 믿고 회개해도 하나님은 재앙을 피하게 하시고, 오히려 축복을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란다. 오히려 회개한 앗수르는 전 세계를 몇십 년 동안 지배한 것이다. 나중에 변질되어 바벨론, 페르시아에게 망했지만.

(2) 두 번째로, 우리는 요나서를 묵상하면서, 감람산의 순종을 회복해야 되겠다. 요나는 예수님께서 대표적 표적으로 말씀하실 만큼 놀라운 체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생각대로 되지 않으니까 끝까지 하나님을 원망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감람산에서 기도하면서, 내 뜻대로 되지 않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하셨다.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있는가. 기도하고 결정하고 기도하고 결혼하고 기도하고 직장 가는가. 단 5분 만 기도하고 해도 달라진다. 내 이익, 내 이권, 내 정욕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맞습니까?’ 하고 단 5분, 1분만 기도해도 달라진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 그것을 안 해놓고 말해놓고 후회하고 행동해 놓고 후회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다. 우리는 어떤 일을 결정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에 비취보게 되기를 바란다. 하나님의 계획, 뜻을 느끼고 깨달으면서 선택할 수 있도록, 완벽하게 성령인도받는 길로 가기를 축원한다.

(3) 세 번째로, 니느웨 백성이 회개할 수 있었던 것은, 마가디라방의 응답을 받았기 때문이다. 오순절 날 마가디라방에 성령이 임했을 때, 민족복음화, 로마복음화, 강대국복음화의 역사가 새롭게 시작되었던 것이다. 요나가 선지자의 헌신을 바르게 해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난 게 아니다. 요나가 사역을 잘 해서 회개하게 된 것이 아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니느웨는 회개할 수 있었던 것이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흥분해서 세계복음화가 된 게 아니다. 마가디라방에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기다렸는데, 마침내 성령이 역사했을 때 세계선교의 문이 열렸던 것이다. 오늘 우리도 기다리자. 하나님이 언약하셨다. 이미 주셨다. 여러분을 통해서 후대를 살리는 응답이 분명히 일어날 것이다. 여러분을 통해서 정치, 경제, 문화를 바꿀 만한 정치지도자, 대통령, 국회의원, 경제인, 기술자, 과학자, 복지 전문인, 상담 전문가들이 일어날 것이다. 이 언약을 붙잡고, 그런 체험들이 일어날 것이다. 믿고 기다려라. 성령이 역사하실 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붙여주실 것이다.

말씀을 마무리하자.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충만해서 전도, 선교에만 방향을 맞추고 오직 예수에, 오직 하나님께 방향을 맞추면 된다. 어려운 게 아니다. 방향 맞추고 순종만 하면 된다. 내 생각만 버리면 된다. 그것을 못 하고 자기 의견을 내다가 많은 축복을 놓치지 않았다. 하나님은 우리나라, 민족, 후대를 통해서 반드시 세계 살리는 축복의 역사를 지속적으로 이루어나가실 것이다. 여러분이 그런 역사의 주역 되시기를 축원한다.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요나보다 부족하고, 앗수르 니느웨 사람보다 율판하고 악하고 부정한데, 거절되고 도둑질하며 타락되어 있는데, 주님이 저희를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고, 다른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고 믿으면 그 축복을 누리라고 언약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끊임없이 날마다 24시간 기도하면서 내 자신이 거듭나고, 21가지 전도자의 삶 속으로 들어가고, 9가지 포인트를 생각하면서 날마다 성장할 수 있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빛을 발하여,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삶과 믿음을 바라보고 감동하여, 믿음의 길로 들어서야 할 진정한 이유를 깨달을 만큼 저희가 새로워지고 거듭나고 응답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